

## 제2강: 초기 르네상스[1420~1500] 시대의 건축가

### ◆ 1교시: 브루넬레스키의 건축

#### ▲ 피렌체 고화원의 구조

브루넬레스키는 1420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두 개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피렌체 고화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피렌체 돔이라고 부르는 주 성당이죠. 성당 건물 자체는 로마네스크 때 것이지만 크로싱 부분에 돔 부분을 브루넬레스키가 담당합니다.

천정에 그림이 유명합니다. 여름에 가면 한 시간 썩 줄서서 그림을 구경하려고들 합니다. 피렌체 고화원은 평면을 보면요, 그림 86이 피렌체 고화원의 평면도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완전히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주로 파사드 부분입니다. 그림 아래 부분입니다. 정사각형 부분이 반복되는 부분이 파사드입니다. 그 파사드가 그림 87입니다. 평면도 대부분을 많이 짚습니다. 평면을 보면 이것은 수도원 구성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도를 봅시다. 탁아소, 기숙사와 직업학교, 병원, 사회회관, 고아원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을 보면 인본주의적인 사회구제사업을 담당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화정 이상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도원 구성이라는 것은 로마네스크적인 배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로마네스크를 배경으로 해서 인본주의적인 공화정 이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평면도입니다.

인면도 봅시다. 그림 87입니다. 독립원형기둥이 바치는 아케이드. 이 아치 자체는 로마적인 배경이고. 이것을 바치면서 아케이드를 만드는 것은 로마네스크적인 겁니다. 둘을 혼합한 것인데요.

그 차이가 반 아치면서 코린트식 주두를 사용한 점이죠. 로마네스크의 아케이드에는 이것이 표준형이었는데요. 로마의 표준형 코린트식 주두. 로마네스크의 아케이드에는 이런 것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주두는 캔버스였습니다.

성경 내용들을 조각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네스크를 기반으로 하되, 로마적인 종합화를 통해 로마 고전주의의 부활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고전적 중세성이죠.

고전적 중세성을 부활시켜 르네상스의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낸 것이죠. 혹은 이런 방식이 초기 기독교의 바실리카 교회에서도 쓰였지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성 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실리카는 이런 식으로 선형공간에 쓰였습니다만 이 건물은 방향이 다른 형식으로 되어 있지요. 그림 87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아케이드는 사람이 섰을 때의 위치가 선형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됩니다.

반면 이 건물에서는 방향이 90도 바뀌는 겁니다. 아케이드가 정면에서 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이 정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길죠. 이 건물 전면이 한 번에 들어오게 하려면 사람이 아주 뒤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분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면성을 한 눈에 보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비례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비례적으로 짜임새를 갖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구성입니다만 초기 기독교의 바실리카는 내부에는 없던 비례구성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때는 구성방식만을 가져온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비례가 짜임새 있게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지요. 이런 것들이 다 르네상스의 인본주의 구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 ▲ 산 로렌조의 구조

비례 자체가 숫자간의 관계이고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것을 갖고 자연현상 같은 것을 정리해 보려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이런 것이 인본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 다음 건물이 산 로렌조입니다. 이것은 피렌체 시내에 있는 겁니다. 산 로렌조는 평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림 90을 보면 정수비례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정치적 부침에 연루되면서 브루넬레스키가 잠시 손을 뗐다가 다시 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림 90을 보면 정사각형을 기본 단위로 해서 1:2의 정수비례를 갖는 형식이죠. 86과 비교를 해보면 훨씬 많이 정리된 것이 보이죠. 평면에까지 정수비례가 적용이 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통일성을 보이죠. 정수비례를 기초로 해서 강한 통일성을 갖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면에 통일성의 지나친 집착은 폐해를 낳기도 합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같은 종류의 부재는 크기와 디테일을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통일성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생각 중의 하나일 수가 있고요. 이 통일성이 나중에 산업혁명

이후에는 산업생산방식과 결부되면서 동일성이 됩니다. 통일성까지는 조화일 수 있는데 동일성이 되면서 억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어쨌든 브루넬레스키는 같은 종류의 부재는 크기나 디테일 등에 있어서 동일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평면을 보지요. 크로싱의 네 모서리에 쓰인 구조구제와 네이브 월. 두 번째 네이브 월에 쓰인 구조가 같습니다.

크로싱의 네 귀퉁이를 받치는 오더와 두 번째 아일의 크기가 같습니다. 크로싱은 돔을 받쳐야 하니까 두꺼워야 합니다. 크로싱의 네 모서리의 구조부와 두 번째 아일의 기둥 구조부가 그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아지면서 이 돔이 줄어드는 겁니다. 크기에 맞게 돔 천장의 무게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이 줄어들게 됩니다. 돔 천장이 작아지면서요.

반면에 지상에서 느끼는 조도와 비슷하게 통일이 됩니다. 하늘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겁니다. 상징성과도 일치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얹치락뒤치락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만 향하던 기독교 중세 기독교에서 땅위의 인간으로 향하는 인본주의로의 변화에 대응되는 현상. 이런 내용들이 산 로렌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 피렌체 돔의 구조

그 다음에 피렌체 돔입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공학기술로 무장한 현장형 건축가이지요. 르네상스부터 전문적 직업인으로서의 건축가가 처음 등장함으로 인해 여러 유형의 건축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건축가 유형별로 건축에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보는 거죠. 예술가 타입, 인문학자 타입, 현장형. 요즘은 셋 다 아니지요. 요즘은 사장님은 비즈니스를 잘 해야지요.

건축가상을 보면 사회의 주도적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사장님상이라는 얘기는 자본의 논리에 많이 휘둘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대형 설계사무소들은 스스로도 건축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더군요.

시대마다 건축가상이 있는데요. 브루넬레스키는 공학기술로 무장한 현장형 건축가입니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덕분에 인문학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천성이 현장에서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이 피렌체 돔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지

만 이 당시 피렌체의 상황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미켈란젤로도 그렇지만 군사 전문가 또한 경험했습니다.

성채의 축조라든가 군사시설 축조가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과 전장에서의 기술이 같았습니다. 나중에 점점 분화되면서 갈라지게 되는 거지요. 브루넬레스키가 바로 대표적인 경우지요. 건축가 외적인 삶을 살펴보면 전쟁에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성채를 짓고 토목기술을 동원해서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에다가 무엇을 띄우는 거죠. 그것을 짓는 것 자체가 토목기술인 거죠. 이런 식으로 브루넬레스키는 굉장히 공학기술을 이용한 활동을 많이 한 건축가였던 거죠.

이 건물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사람은 공학기술을 실용성의 개념으로 잘 풀어낸 거지요. 그 덕분에 건축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기술자에 머물지 않고요. 보통 시공이나 설계가 상반된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도 설계나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단순 노무자일 뿐입니다. 설계자도 엔지니어적 소양이 많아야 합니다. 사실 건축가로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칼라트라바인데요.

브루넬레스키도 이런 공학기술을 실용성의 측면에서 실현한 건데요. 크게 세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 설계자를 응용한 것은 상식적이고, 그 외의 두 가지 중 하나는 비용절감이지요. 사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때는 사실 아직 중세이지요. 브루넬레스키가 건물 하나 달랑 지었다고 근대가 시작된 것은 아니죠. 그것은 단지 후세에 사가(史家)들이 정리를 한 거지요. 당시에 유럽에 지어지던 천 개의 건물 중에 브루넬레스키의 건물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중세식의 건물이었지요.

중세의 장인들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짓던 건물들이 낭비요소가 많다는 거지요. 중세 건축이 그 자체로 보면 위대해 보이지만 종교적 열정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교적 신비주의가 드러나지요.

그런 것의 구현에만 관심을 두었고 그것이 얼마나 낭비적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기울이지 않았는데 브루넬레스키가 처음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가 상당했다는 거지요.

단순히 비용절감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하니까. 깔끔한 시공. 정밀한 시공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실용적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브루넬레스키에게 허용된 공사비는 항상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죠. 건축주가 중세 때는 기독교 교단이었으므로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의 성전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면 공사를 안 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세 성당 중에는 몇 백년 간에 걸쳐 지어진 것이 많죠.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 건축주들이 세속집단이 되죠. 금융가문이라든가요. 돈 셈이 정확한 집단이지요. 그러므로 한 번 지으면 빨리 끝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짓다가 쉬었다가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처음부터 총액을 셈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해야만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에 표준화 개념을 도입한 거죠. 도면화 작업이죠. 공사비 측면에서 보면 그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중세 때는 도면이 없었지요.

지난번까지 봤던 중세 고딕 성당들은 건축도면이 없습니다. 순전히 경험에 의해서 현장에서 구전으로 장인에게 배움으로써 지었던 겁니다. 도면이 없으니까 표준화 개념 또한 있을 수 없지요.

눈대중으로 자르고 하는 거죠. 서양 건축사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건축도면을 적용한 사람이 바로 브루넬레스키입니다. 도면사도 보면 재밌습니다. 요즘은 손으로 그리지 않지만요. 제가 설계 사무소 다닐 때 저는 컴퓨터를 잘 썼습니다.

제가 비록 컴퓨터 혐오주의자이지만 잘 쓰기는 했습니다. 전 캐드(CAD)는 잘 썼습니다만 캐드를 죽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는 거와 캐드로 그리는 것과 무엇이 빠른지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꾸만 이 캐드가 보편화 되는 것은 기준층을 재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건물이 자꾸 변해가니까 가능한 거죠. 컴퓨터의 강력한 점이 그거지요. 손으로 그릴 때는 백층이면 백층 다 그려야 하지요.

하지만 컴퓨터는 하나만 그려놓고 복사하면 되잖아요. 도면을 처음 적용한 사람은 브루넬레스키이지만 나중에 가면 안토니아 다 상갈로가 설계 사무소 시스템을 근대식으로 바꾸면서 도면 작업과 설계 사무소 시스템이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르네상스 때 이런 근대적 체계화가 정착이 됩니다. 반면 미켈란젤로는 도면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작품들은 많이 남겼지요. 그는 체계적인 건축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에서는 사실 후진적인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현장에서 장인을 부려가며 건물을 지은 사람이죠.

어쨌든 브루넬레스키는 근대화 작업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죠. 특히 정밀한 시공, 오차범위를 많이 줄이죠. 중세까지만 해도 수십 센티미터의 오차는 보편적인 것이었던 얘기죠. 그러나 브루넬레스키가 센티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으려 하죠.

그래서 장인들도 새로 교육을 시키게 되죠. 같은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설계 사무소 가면 캐드에서부터 교육을 받지요. 컴퓨터 사용법부터 표준화 개념까지 신입사원 교육을 받습니

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브루넬레스키도 방법은 다르지만 현장에서 장인들을 교육하고 했던 거죠. 특히 도면화 작업에 있어서 수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죠.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피렌체 돔이죠.

이 건물의 역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296년에 첫 공사가 시작되어서 1367년에 돔을 덮기로 결정합니다. 탈레티란 사람이 안을 내어서 확정이 됩니다. 지름이 42미터, 높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무려 84미터입니다.

돔의 하중이 2만 5천톤. 1367년에 공사가 시작될 당시에 이 크기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전부 손을 들고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15세기에 들어와서 현상공모가 붙었던 겁니다.

기베르티(Ghiberti, 1378~1455)와 브루넬레스키가 붙었지요. 두 사람은 지독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서양 건축사에 보면 라이벌 관계가 많습니다. 기베르티는 건축가가 아니고 조각가인데요.

이때는 장르간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았던 때니까요. 라파엘과 미켈란젤로도 나이차는 좀 나지만 라이벌 관계였지요. 어쨌든 브루넬레스키가 이겨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가 고안해 낸 것이 이중 돔이었습니다.

이중 돔에서 수평 벽을 연결하는 거죠. 이중 돔은 판테온에서 가져온 것이고 수평벽으로 연결하는 것은 성 조반니 세례당의 구조방식을 혼합한 거죠.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지름입니다.

중세 방식으로는 당연히 이 축조가 되지 않습니다. 42미터는요. 그러나 이것이 돔 방식이 되면 가능하게 되죠. 돔은 그냥 쌓아 올라가면 되니까요. 돔은 long span이 가능한 구조방식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커서 서 있기가 위험한 것을 이중으로 해결하죠. 속은 사람들이 공사나 수리를 위해 다닐 수 있는 통로로 축조합니다. 그것이 그림 95입니다. 그렇게 피렌체를 상징하는 걸작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브루넬레스키는 이런 구조기술들을 목적을 정하고 그것에 맞게 종합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명분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이 강했죠. 목적을 위해서는 상반되는 방식들마저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rig&web 방식이죠. 그것이 그림 97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돔을 저통적인 아치에서 나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한 것이죠. 돔 벽을 각각 방사전 구조로 짜는 거죠.

이 자체 하나 하나는 rib를 이용해서 flying buttress처럼 짜고 나머지는 이 위에 막처럼 덮는 거지요. flying buttress처럼 했기 때문에 안이 움푹하게 파이므로 위에서 천장을 마무리를 하면 돔의 동그란 진공부분이 나오는 거죠.

long span은 나오지 않지요. 그 대신에 이 돔은 하나하나 구조 부재인 동시에 하중작용을 하는 거죠. 동시에 그것이 천장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rig&web 방식은 천장을 막처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처리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작은 규모에서는 이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지요. flying buttress는 중세 방식이고요. 돔은 로마시대 방식인데요. 이 두 개는 사실 같이 어울릴 이유가 없는 거지요. 미워해서라기보다는요.

기본적인 개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둘이 어울릴 일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모아서 새로운 구조방식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런 것을 기술자는 못 합니다. 건축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계할 때도 구조나 시공하는 사람들을 설계사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디자인할 때 구조나 시공개념에 건축가들이 개입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디자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겁부터 먹고 디자인을 고칩니다. 그럴다가는 디자인이 뻥합니다. 우리나라 건축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라멘구조 이상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설계할 때부터 건축가가 개입해서 상담하면 달라지죠.

이런 식의 디자인 개념이 가미된 것은 건축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것을 잘 보여준 예가 바로 브루넬레스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브루넬레스키의 실용성의 측면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물 안치소입니다. 산 로렌조의 부속 건물로 구성물 안치소라는 건물이 있죠. 그림 99에서 100까지요. 표면을 보면 정사각형의 본당, 직사각형의 부속공간이 더해지고 이것은 다시 삼등분되어서 중앙에 작은 정사각형 공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사각형 공간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겁니다. 중앙에 큰 것이 있고 그 안에 작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중초점인 거죠. 중앙 집중성이 강화되는 거죠. 그것이 잘 드러난 작품이죠.

르네상스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루넬레스키는 그 중에서 독립원형기둥을 이용한 아케이드, 실용성 개념, 중앙 집중형, 이 세 가지를 도입한 겁니다.

## ◆ 2교시: 알베르티와 미켈론포의 건축

### ▲ 알베르티의 건축 양식

알베르티는 1404년에서 72년까지, 브루넬레스키보다 한 세대 뒤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대비가 되는데요. 브루넬레스키가 현장형 건축가였다면 이 사람은 인문학을 배경으로 하교요.

브루넬레스키가 근대건축의 문을 열었다면 이 사람은 이어받아서 완성한 사람이죠. 브루넬레스키는 피렌체를 못 떠난 반면 알베르티는 피렌체뿐만 아니라 로마, 리미니, 우르미노, 만토마 등에 르네상스를 확장시킨 사람이죠.

그 중에서 로마의 영향이 가장 크죠. 피렌체가 아무리 중요한 도시라고 해도 로마에는 비할 바가 아니죠. 로마를 개입시키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1450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대체로 인문학적 저술에 참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를 구사할 줄 알았고요. 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저술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희곡, dialog, 수필, 이탈리아어 문법, 윤리학, 사회학, 지도 제작법, 농업 등.

인문학 전 분야에 대해 중요한 저술들을 많이 남겼고요. 중반기 때에는 로마 복원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니콜라스 5세 때 로마 재건 사업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후반 때 비로소 설계를 시작합니다.

거의 50쯤 다 된 나이에 설계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도 정식 건축가가 아니라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주는 장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활동하지요. 건축 10서라는 책을 기초로 해서 로마 고전주의를 르네상스 이상에 맞게 재해석 해냅니다.

아 사람의 작품을 보면 산 프란체스코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중단되었던 건물인데요. 중세 때부터 있던 건물을 외관만 씌우는 것이었는데요.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죠. 1층은 제대로 되어 있죠.

1층을 보면 개성아치 모티프이고요. 바실리카, 파사드이지요. 개성아치 모티프는 다 아는 것이고요. 바실리카 모티프는 네이브 천장과 아일 천장의 높이 차이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완성으로 남아 있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오더 중심의 기둥 구조보다 벽체 구조를 우위에 둡니다. 그림 120을 보면 이미 개성아치를 썼다는 것 자체가 개성문이 주체고 오더가 장식물로 달라붙는 거죠.

그런 구조이므로 그림을 보면 중요 부재는 벽체가 받치고 오더는 장식물로 더해져 있죠. 반원형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림 212에 오면 아예 사각기둥으로 바뀝니다. 이 폭이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것이 벽인지 기둥인지 모를 정도로 두꺼워집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독립원형기둥을 많이 사용했는데 반해서 알베르티는 벽체를 많이 사용한 대별성을 보이지요. 브루넬레스키는 중세적 연속성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알베르티는 골수 로마 고전주의자였다는 거죠.

브루넬레스키가 르네상스를 시작하면서 중세적 연속성을 이어받는 것에 반해서 알베르티에 이르러서는 르네상스가 완성이 되면서 로마 고전주의의 부활이 나타나는 겁니다. 건축 어휘를 통해서 몸소 보여주지요.

브루넬레스키가 르네상스의 문을 연 그만의 기여가 있었듯이 알베르티 또한 그만의 기여가 있었던 것인데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이 개선아치 모티프라는 구체적인 기능의 선례이지요.

초기 기독교의 바실리카 교회, 로마의 개선문이라는 구체적인 기능의 선례를 가져오고 벽체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건축가들마다 앞으로 기여 내용이 나올 겁니다.

125를 보면 산타마리아 노벨라가 나오죠. 이것은 기하 장식주의입니다. 이것 또한 브루넬레스키에게 없던 알베르티만의 르네상스 기여 내용입니다. 아래 맨 밑둥 부분을 크게 확대한 것이 그림 127인데요. 그것을 보면 맨 밑에 포인트드 아치 네 개가 있죠.

원래 고딕 시대 때 여기까지 지어져 있던 것을 알베르티가 그것을 이어 받아 윗부분을 완성하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토스카나 지방의 고딕 양식인 기하장식주의를 이어받아 비례, 기하적 윤곽 등을 강조하면서 르네상스만의 정리된 기하장식주의를 만들어 낸 겁니다.

토스카나 지방의 proto-renaissance를 이어받았지만, 르네상스만의 정리된 추상 기하주의를 정리해 낸 것이 그만의 특징이지요.

그 다음 건물이 130에 있는 San Sebastiano 또한 개선문 모티프이지요. San Sebastiano는 개선아치 모티프와 신전 파사드, 이 둘을 하나로 혼합해 낸 처리를 보여주지요.

개선아치는 로마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신전 파사드는 그리스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기능유형이죠. 이것을 하나로 합치지요. 고전의 강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고전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갖는 건물이지요.

그 다음에 San Andrea입니다. San Andrea는 만토바에 지어진 건물이지요. 중앙 집중형과 선형성의 혼합이죠. 중앙 집중형 건물이 르네상스의 이상에 맞는 것이라고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요.

이것을 기능적으로 보면 선형성이 일정 부분 가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개신교 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성당이였기 때문이죠. 선형성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야 합니다. 둘 사이의 혼합 문제가 중요하게 되지요.

일단은 그릭크로스과 라틴크로스, 이 둘을 적절히 혼합해서 둘을 만족시킵니다. 아까 봤던 브루넬레스키의 산 로렌조와 비교해 보면 중앙성이 굉장히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죠. 벌써 시대가 3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브루넬레스키에게 강하게 남아있던 중세적 연속성이 알베르티에게는 르네상스의 정체성으로 많이 넘어간 거죠.

이 두 평면을 비교해 보면 30년의 시차를 알 수 있는 거죠. 더 문제는 이 라틴크로스를 섞어서 만족을 시켰지만 이것이 너무 강화된 느낌도 듭니다. 선형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일, 네이브 월을 산 로렌조에서는 아케이드, 독립 원형 기둥열로 처리했다면 여기서는 두꺼운 벽으로 처리합니다. 그림 133과 그림 92를 비교해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이브 월을 열주 기둥이 아니라 이런 벽체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일을 독립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채플, 예배당으로 할당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횡방향으로 자잘한 축들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형성이 대폭 약화됩니다. 그러면서 벽체는 다시 개선문 모티프로 처리가 됩니다. 아일 천장도 배럴 볼트로 처리됩니다. 이것은 다시 로마성의 강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사드도 보면요. 다시 개선아치와 신전 파사드를 혼합해 냅니다. 좀 전에 봤던 그림 130이 반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좀 더 높아진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 기둥이라는 것을 처음 쓰게 됩니다.

collosal 혹은 giant pillar로 부르죠. 이것은 2개층 이상의 높이를 기둥 하나가 커버하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합해지면서 르네상스 기독교 고전주의의 대표 유형이 완성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끝나고 르네상스가 시작된다고 해도 기독교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이 두 개가 합쳐지는 새로운 기독교상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것은 교리, 사상, 의식, 제식 등 여러 측면에서 일어나죠.

이것을 내용적인 측면에서 찾다가 폭발한 것이 종교개혁이지요. 중세 가톨릭으로는 르네상스에 맞는 새로운 기독교가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인데요. 건축에서도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나 타입이 요구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찾는 작업을 알베르티가 완성시킨 거죠. 이것이 바르크까지 쭉 사용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네이브 월, 배럴 볼트 크로싱의 돔, 신전 파사드와 개선아치 모티프 등.

이렇게 세트로 구성되는 르네상스 기독교 주의가 완성되는 겁니다. 알베르티가 르네상스를 1차 완성시키게 되는 겁니다.

#### ▲ 미켈론초의 건축 양식

그 다음에 미켈론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베르티나 브루넬레스키보다는 덜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palazzo 를 완성합니다. palazzo는 우리말로 궁이 번역하면 궁(宮)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이라고 하면 늘 왕궁이라고 생각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왕궁은 royal palace라고 따로 명칭이 있고요. 보통 palace는 권력자가 사는 성인데요. palazzo는 palace에 해당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보통 palazzo라고 쓰는 것은 르네상스 때 금융가문 내의 도시 내 본거지를 말합니다. 교회에 본거지가 있고 도시에 있는 건데요. 교회에 있는 것이 빌라이지요. 한 가문이 보통 두 개의 본거지를 갖습니다.

같은 금융가문 이름이 붙습니다. 피렌체에도 보면 palazzo와 villa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의 palazzo는 정치 경제 활동의 본거지였다는 얘기죠. 이것이 르네상스에 와서 미켈로초에 의해 완성이 됩니다.

이 형태는 중세 때부터 도시 내에 부르주아들의 근거지로서 타워 하우스나 시청사로 쓰여 왔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짜임새 없는 일반 2,3층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르네상스에 와서 짜임새 있게 정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면을 크게 9등분합니다. 1층은 가로(街路)를 면하기 때문에 방어적 이미지로 처리합니다. 너도 나도 들어오면 큰일나지요. 창도 작아요. 사람 키보다 높고 작습니다. 벽도 성채 이미지를 줍니다.

2층은 중심층이고 3층은 애틱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2층 중심층의 정중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내로 보면 집주인의 응접실이나 접견실이 들어갑니다. 도시 상황을 주시하며 일하는 거죠.

이것을 piano nobile라고 부릅니다. piano는 층이라는 의미이고 nobile는 noble, 고상한 층이라는 거죠.

평면을 보면 ㄷ자형이지요. 그림 140이 바로 palazzo의 대표적인 구성입니다. 도시 내에 부자들의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건물이 폐쇄적일 수밖에 없게 되고 옥외활동이 필요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옥 안채를 보면 이것과 비슷한 구성을 갖죠. 유교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밖으로 맘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니까요. 여기도 보면 옥외활동 공간이죠.

palazzo는 이런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윤곽 안에서 나머지를 아기자기하게 배치하는 거죠. 때문에 서양에서는 현대 건축가들이 palazzo를 분석을 많이 합니다. 르네상스 때부터 수백 채의 중요한 palazzo들이 지어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추상 기하주의를 기본 윤곽으로 해서 복합공간이나 상대주의공간을 추구하는 현대 건축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palazzo 모델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평면과 입면의 기본 유형을 완성한 사람이 미켈론포입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이 palazzo 메리치이지요.

그러나 미켈론포의 한계는 이것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비례적 짜임새는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베르티와 동시대 사람이지만 그와 같은 인문학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고전적 비례감, 고전적 구성력을 더해 palazzo의 두 번째 완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림 141과 121을 비교해 보면 141은 그냥 튼튼하게 지은 건데 122는 그것을 벽기둥을 이용해 수직 분할을 하고, 아치를 보더라도 기하학적 윤곽을 보이게 되죠. 또한 비례구성에 의해 전체적으로 고전적 통일감이라는 구성력을 갖게 되는 거죠.

미켈론포가 palazzo의 기본 구성을 완성시켰다면 알베르티는 그것을 이어받아 거기에 고전 비례, 조화, 통일을 정리해 내는 중요성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기 르네상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성기 르네상스로 넘어가겠습니다.